

# 2019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통보일자	2019. 11. 8.
의원정수	재적인원 11명

1. 일 시 : 2019. 9. 15(금) 12:00

2. 장 소 : 명곡정보관 521호

3. 참석의원

구 분	인원	성 명
참석의원	8명	송기성, 이세영, 김민수, 이재우, 명현숙, 장승국, 황복주 유영춘
불참의원	3명	안상윤, 황원민, 상한규

4. 안 건

<안건 1> 학칙 개정(안)

<안건 2> 2019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5. 회의내용

송기성 의장 : 대학평의원회 재적의원 11명중 3명이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하고 재적의원 8명의 참석으로 성원되었으므로 2019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안건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기획예산팀장에게 내용을 설명토록 하다.

기획예산팀장 : 학칙 개정(안)은 제1조 목적에서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교육목적을 변경하게 됨을 설명하다.

황복주 의원 : 대학 학칙의 대학목적이 시대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매번 변경되니 보편적 가치로 가는게 타당하다고 의견 제시하다.

송기성 의장 : 황복주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 상황이 교무위원회에 전달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하다.

의장	송기성	부의장	김민수	의원	장승국
----	-----	-----	-----	----	-----

이세영 의원 : 황복주 의원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으나 대학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되고 3주기 평가와도 연계되어 있으니 이번 안건은 통과하고 교무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를 제안하다.

장승국 의원 : 더이상 특별한 논의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

(이때 참석의원 전원 동의하다)

송기성 의장 : ‘학칙 개정(안)’은 참석의원 전원이 동의하셨기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이어서 2019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평의원회에서는 자문역할임을 설명하고 안건에 대해서 기획예산팀장에게 내용을 설명토록 하다.

기획예산팀장 : 직전 2019학년도 1차 추경예산에서 7억2천 규모로 예산을 추가 편성했었으며,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은 총예산 129,049,313천원(-1,708,616)으로 편성하였음을 말하다. 운영 수지는 명시이월 적립액 6,037,822천원을 제외하고 3,750,597천원의 적자액이 발생함을 설명하고, 1차 추경 대비 적자 폭이 3,030,755천원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설명하다.

<수입부>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등록금수입 -1,750,705천원, 수강료수입 -285,780천원, 병원 및 산단 전입금 감소로 인한 전입금수입 -604,655천원, 기부금수입 -1,038,691천원, 혁신사업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수입 +2,319,288천원, 기금인출수입 -467,405천원 등.

<지출부>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교원보수 -1,187,414천원, 직원보수 +936,605천원, 대학혁신사업비 반영과 명시이월액 기금 적립으로 인한 기금적립지출 +6,037,822천원 등이 주요 내용임을 설명하다.

지출부에서 교원보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 직원보수는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9 본예산 편성 시 교원급여는 3.03%의 인상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직원급여는 임금협상 전 시기로 동결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큰 폭으로 차이가 발생했음을 설명하다. 추가로 교원보수는 임상교원 인건비와 명예퇴직금이 크게 감소하여 더 큰 폭으로 차이가 발생했음을 설명하다.

의장	송기성	부의장	김병수	의원	장승국
----	-----	-----	-----	----	-----

송기성 의장 : 황원민 의원이 참석을 하지 못해 메일로 질의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해 질의하다.

기획예산팀장 :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국가장학금2유형을 받지 못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모든 사립대학교가 똑같은 처지여서 제일 먼저 올리게 되면 사회적 이슈화가 됨을 답변하다.

명시이월금 60.4억의 활용계획은 건축기금 46억, 장학기금 14.4억으로 활용됨을 답변하다.

적립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항목간 이동이 가능하겠으며 검토하여 연구기금으로 활용에 대해 강구하겠음을 답변하다.

교원 및 직원의 임금은 동일하게 인상되었으며 교원은 1차 추경에 반영되었고 직원은 2차 반영되어 표시상의 문제임을 답변하다.

김민수 부의장 : 낮은 등록금 정책은 우리가 각종 국고사업을 하면서 국고사업비로 살림을 하고 등록금은 적립하여 적립금이 많이 늘어났음, 이 이유는 튼튼한 법인 있어서 지원해주겠다는 논리로 했었고 이제 학교가 어려워지면서 법인에서 지원을 해줘야하는 시기라고 생각되고 이런 의견이 평의원회의 의견임을 법인에 제시해줄 것을 제안하다.

유영춘 의원 : 등록금 인상시 페널티가 있는지와 그 기간을 질의하다.

기획예산팀장 : 등록금 인상은 국가사업 참여 제한과 지속적으로 장학금 2유형의 지급이 제한됨을 설명하다.

이재우 의원 : 10년 물가상승률 감안해 등록금 인상은 적극 검토해야 함을 건의하다.

김민수 부의장 : 2027년까지 법인에서 지원해주면 우리대학 자생능력이 생겨 재정 문제가 많이 해소됨을 설명하고 앞 부분에서 얘기한 법인의 재정적 지원을 다시 제안하다.

이세영 의원 : 대전·충남권 적립금이 20억 미만인 곳도 있는데 그 대학들의 상황과 전국 대학들의 경향성은 어떤지를 질의하다

기획예산팀장 : 인근대학들의 적립금이 적은 대학들은 위기가 와서 인건비 등은 대부분 동결하였고 천안권 대학과 등록금 차이는 많은 대학은 100만원에서 적게는 30만원 차이가 남을 설명하다.

의장	송기성	부의장	김민수	의원	장승3
----	-----	-----	-----	----	-----

장승국 의원 : 대학이 인권비 비율이 높음은 다른 대학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게 아니라 낮은 등록금으로 인한 비율이 높음을 설명하다.

이세영 의원 : 학생 및 학부모님들은 더 이상 등록금이 저렴하다고 해서 지원하지는 않음을 설명하며 더이상 특별한 논의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  
(이때 참석의원 전원 동의하다)

송기성 의장 : '2019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참석의원 전원이 동의하셨기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공문을 통해 법인에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전달할 것을 당부하다.  
이번 회의의 간서명은 의장, 부의장, 장승국 의원이 하기로 하며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다고 말씀하시며 대학평의원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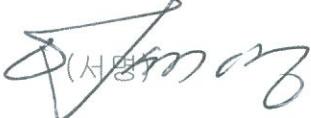
위 사실을 원안과 같음을 확인함.

2019. 11. 15.

의장 송기성 

부의장 김민수 

의원 유영춘 

의원 이세영 

의원 이재우 

의원 장승국 

의원 명현숙 

의원 황복주 